

완도 6개섬 현대전화 난청 해소 나선다

완도군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현대전화 난청지역 해소에 나선다. 완도군은 “현대전화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전남도·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청산면, 소안면 등 관내 6개 섬 16개 지역의 현지 환경실태 조사가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안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섬 가꾸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전남 섬지역 주

전남도·이동 3사 업무협약 16개 마을 현지 실태 조사 기지국·중계기 추가 설치

민과 이장단을 통해 현대전화 난청지역을 조사한 결과, 완도지역의 경우 노화와 고금, 신지, 청산, 소안, 생일 등 6개 섬 16곳이 일부 불통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지난 4월

섬 지역 현대전화 난청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사 기술진과 합동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완도군은 지난 10일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생일면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와 전남도 합동으로 현지 환경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송·수신 감도가 미약한 곳은 기지국 및 중계기 출력상승과 방향 조정을 하고, 불통지역은 이동통신 3사에서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난청지역을 해

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 중 난청지역 현지 합동 정밀조사를 마친 뒤 6월부터 소규모 투자로 우선 해결이 가능한 지역과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사전 준비가 필요한 지역, 설치하기가 어려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순으로 구분해 4년간 추진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섬지역 주민이나 여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와 이장단을 통한 난청 지역 조사 등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농민들이 최근 현산면 경수리에서 무논점파 연수회를 실시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벼 무논점파 2500ha까지 확대

현산면 경수리서 재배기술 교육·파종법 시연회

해남군이 올해 벼 무논점파 재배를 전 해 면적의 10%가 넘는 2500ha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년대비 500ha가 증가한 규모로, 해남군은 올해 관내 75개소에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를 조성해 전체 재배면적의 11%까지 무논점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논점파는 못자리 설치 및 관리 단계를 생략하고, 무논상태에서 범씨를 파종하는 재배법이다. 중도 기계이앙과 비교해 품질과 수량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 기존 직파의 문제점을 해결해 일정한 간격과 적절한 파종 깊이를 범씨를 뿌려 초기 생육이 우수하고, 벼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무논상태에서 파종해 잡초성 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앙단계의

노동력을 35% 이상 절감하는 등 ha당 100만원 가량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지난 17일 현산면 경수리에서 벼 무논점파 재배농가와 농기계 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교육 및 연수회를 갖고, 핵심기술 교육과 파종방법 시연 등을 실시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30%인 6500ha까지 무논점파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벼 무논점파 재배 기술은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존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김→Gim·미역→Miyok 완도군 수출용 해조류 우리말 영문표기 사용

완도군이 수출용 해조류 영문표기를 우리말 영문표기로 바꾸기로 했다. 완도군은 24일 “김, 미역, 다시마 등 우리나라 명품 해조류들이 해외유통 과정에서 일본어 표현의 영문표기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과 일본제품의 혼동이 유발돼 수출용 해조류의 우리말 영문표기를 확정·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해 6월 전남청정농산물센터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외에 수출되는 김 등 해조류의 제품 포장지에 우리말 영문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표 해조류 5개 품목에 대해 한글식 영문표기로 김은 Gim, 미역은 Miyok, 다시마는 Dasima, 파래는 Parae, 툇은 Tot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진도군 이달부터 동시 발급

진도군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윈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여권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윈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군청에서 여권발급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함께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여권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우수영으로 맨손 송어잡이 가볼까

해남군 ‘명량역사체험마당’ 8월 6일까지 매 주말 운영 토요일 맴섬 앞 음악회도

해남군이 ‘우수영 명물’인 울돌목 송어잡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해남군은 “지난 1일부터 8월 6일까지 매 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명량역사체험마당을 운영해 우수영 관광지 내에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하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봄철 울돌목의 최고 볼거리로 꼽히는 송어잡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맨손 송어잡이 체험이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량역사체험마당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수영 정문 앞에 대형울돌목을 설치해 실시되는 맨손 송어잡이 체험에는 매회 100여명 이상이 몰리면서 하루 준비 물량인 300마리의 송어가 조기에 소진될 정도다. 체험비는 어른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1인당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추가 요금을 내면 즉석에서 잡은 송어를 회로 떠서 맛볼 수 있도록 양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돌목의 명물인 뜰채 송어잡이도 물때에 따라 하루 1~2차례씩 이뤄지고 있어 울돌목 바다와 어우러진 진귀한 볼거리가 되고 있다. 물살이 세



해남군이 오는 8월 6일까지 명량역사체험마당에서 운영하는 ‘울돌목 송어잡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맨손으로 송어를 잡고 있다. <해남군 제공>

기 때문에 일반인은 직접 체험할 수는 없으며, 어린이들의 송어잡이 모습을 진도대교 아래 교각에서 구경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울돌목의 명물 송어를 직접 잡아 맛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명량역사체험마당이 문화와 역사를 결합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오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매 주 토요일 맴섬관광지 맴섬 앞 무대에서 맴섬작은음악회도 연다. (사)한국생활음악협회 해남지부(지부장 한재철)가 주관하는 음악회는 총 10회에 걸쳐 색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다채롭게 열린다. 오는 28일 1회 공연에서는 ‘맴골, 그리움으로 물들었다’를 주제로 색소폰, 난타공연, 크로마하프, 테너 공연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또 ‘희망의 맴골 몸짓으로 풀다’, ‘맴골! 소리 늘 사랑해’ 등 다양한 주제로 국악, 대중가요, 전통가요, 락, 클래식 공연 등이 어릴 예정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항 배후단지 강도항 개발 타당성 조사

항만지원시설 등 조성...국비 확보·민간 투자 방안 검토

완도군이 완도항 배후단지 신지연 강도항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완도군은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됨에 따라 국비 또는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은 24일 “완도항 장기종합개발 계획으로 항만지원시설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배후단지 개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연안 물동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도항을 확장해야 하지만, 완도읍의 지역적 특성상 남파파제와 북방파제의 한계로 추가 확장이 어렵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완도항개내 신지연 강도항을 매입해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도항 배후단지 개발에는 부족한 항만기반시설을 비롯한 지원·친수 시설 조성,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완도군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연근해 조업 어선의 부족한 선석 확보는 물론 레저와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인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빛가람 탐공인중개사

나주혁신도시 매물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국도1호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 토지 매매 (토지 7,657㎡)
 - (근생 1층 258㎡, 사무실 2층 72㎡, 1층 점포 173㎡)
 - 가든 식당, 사무실, 창고, 한옥기와주택 (조경 최상)
 - 매매가 25억
- ▶ 나주시 빛가람동 근린 생활 부지 690㎡, 매 15.5억
- ▶ 빛가람동 부영 1차 앞 토담빌딩 801호 임대
 - 코너 상가, 전망최상 - 전용 179㎡
 - 스키아운지, 레스토랑, 헬스장, 노래방, 외우바
 - 임대가: 보 5천, 월 130만원
- ▶ 빛가람동 초·중·고 앞 2층 상가 임대
 - 아파트 최대 밀집지역 코너상가 - 전용 210㎡
 - 치과, 한의원, 피부과, 커피숍, 미용실
 - 임대가: 보 1억, 월 200만원
- ▶ 나주시 빛가람동 중흥 오피스빌 1·2차 상가 2층 임대
 - 1차 2층 상가 임대 203호, 204호
 - 2차 2층 상가 임대 211호, 212호, 213호, 215호
 - 중흥 아파트 1·2차 정문 앞 2층 상가
 - 병 의원, 학원, 미장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 ▶ LH 6차 아파트 인근 코너 1층 상가 임대 보 3천만원, 월 50만원
5층 상가 임대 보 3천, 월 130만원
- ▶ 단독주택 부지 269㎡ 매 1.62억
- ▶ 영우 대광 아파트 110㎡ 매 2.3억 (확장비 별도)
- ▶ 대광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 47㎡ 매 3.3억

PC방, 맘스터치 최적지 임대!

분양 및 임대문의 010-6688-9114
010-9120-9114

당신의 부동산 경매의 멘토이자 파트너

(주)사랑방경매가 부동산 경매를 혁신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주조공장]

남산동 분양우체국 옆
2층 1층, 단층 3층
현 주조공장 사용중
대지 1,370㎡ / 건물 739㎡

감정가 8억 6천 5백만원
최저가 3억 9천 1백만원

[무안군 망운면 토지]

뜸머리 해변 옆
계획관리지역, 맨션 단지 적합
2차선 도로 접, 바닷가 전망
토지 10,706㎡ (3,239평)

감정가 9억 1천 5백만원
최저가 8억 2천 3백만원

[광주시 서구 숙박시설]

양동 월산 4거리 인근
지하 1층~지상 5층
일반상업지역, 밀집상가지대
대지 577㎡ (174평) / 건물 424㎡

감정가 10억 8천 6백만원
최저가 4억 8천 7백만원

[담양군 남면 임야]

정곡리 평촌마을 인근
소형차량 접근 가능
도시계획지역, 자연림
임야 381,304㎡ (115,344평)

감정가 4억 9천 6백만원
최저가 2억 7천 8백만원

(주)사랑방경매 Tel. 062)233-3372
Sarangbang auction Consulting Co., Ltd. 지산동 법무구조공단 옆